

정용진, 디지털 전환 총력전... 신세계 물류·배송 경쟁력 ↑

〈신세계그룹 부회장〉

이베이 인수로 인력·기술 확보
이커머스 강화로 1위 유통사 도약
자금 확보 위해 부동산 매각 검토

올초 신년사에서 '반드시 이기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디지털 전환에 총력전을 기울인다. 소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오자 디지털 온라인화에 집중해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 신세계는 온·오프라인 통합 시너지를 통해 국내 1위 유통 사업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신세계 측은 인수 당시 "오프라인 사업구조에서 온라인과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 이마트 부문 내 온라인 비중은 약 50%까지 확대된다.

신세계는 단숨에 쿠팡을 제치고 업계 2위 사업자로 부상했다.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한 이베이코리아는 지난해 기준 12% 시장 점유율에 신세계의 온라인물 SSG닷컴 점유율 3%를 단순 합산하면 15%다. 네이버는 18%, 쿠팡은 13%다.

신세계는 이번 인수를 통해 우수한 인력과 기술 등 무형자산을 확보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중장기적으로 그룹사의 이커머스 경쟁력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 투자는 필수

신세계의 다음 과제는 물류 경쟁력 강화다. 그동안 신세계는 온라인물류센터인 'NEO' 확장보다는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PP센터(풀필먼트센터) 중심의 배송 확대를 우선시해왔다. 대규모 물류센터의 가동률을 걱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향후 대규모 물류 투자는 필수다. 업계 관계자는 "SSG닷컴과 이베이코리아의 물류센터를 공유한다면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물류 투자가 바탕이 되어야 이커머스 성장성도 보장된

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물류 투자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물류·배송 경쟁력이 소비자 유인의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경쟁사 쿠팡이 빠른 배송으로 급성장한 대표 케이스다. 쿠팡은 올해도 국내 물류센터 투자에 1조원 가량을 투자했다.

신세계는 최첨단 온라인물류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SSG닷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4년 간 1조 원 이상을 물류센터에 투자한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거점으로

활용하는 점포 물류센터 경쟁력도 강화한다.

◆자산 재배치 추진

물류와 배송 인프라를 위한 실탄 확보를 위해 부동산 매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마트는 성수동 본사 건물 유통화를 위한 자문사로 CBRE를 내정했다. CBRE는 세계 최대 상업용 부동산 투자 회사다. 이마트는 건물을 펀드에 매각한 뒤 재임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대 1조원 가량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측은 "이마트 점포 등 부동산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자산의 전략적 재배치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 일환의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최근 "부동산은 갖고 있지 말고 이커머스와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개념을 임원들에게 강조한 바 있다.

◆패션 플랫폼 인수해 경쟁력 강화

지난 4월에는 고객층을 늘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패션플랫폼 W컨셉을 인수했다. 2030 젊은 여성 고객에게 인기가 많은 플랫폼을 인수해 MZ세대 취향을 파악하고 패션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SSG닷컴은 W컨셉을 별도 플랫폼으로

로 운영하되, 구매 접점을 넓히고 구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신세계백화점의 뷰티 편집숍 '시크르'가 W컨셉 내에 입점했다. 신세계 계열사 SSG닷컴이 패션 플랫폼 W컨셉을 품은 이후 처음 나온 협업 사례다.

각자의 영역을 보존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이베이코리아 계열사와 신세계그룹 계열사 포인트나 간편결제 시스템의 연동 등을 통해 조금씩 화학적 결합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와 유통의 결합

더 앞선 1월에는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 SSG랜더스로 새롭게 창단했다.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 그리고 본업인 유통과 야구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와 SSG닷컴에서는 신세계그룹 야구단 'SSG랜더스'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신세계는 야구팬층과 유통 시장을 주도하는 세대가 겹치는 점에 주목했다. 이마트와 SSG닷컴 등 브랜드 파워를 통한 시너지 제고와 연계마케팅, 야구 관련 PL(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등으로 고객 유입에 나설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수입차, 보복소비 업고 실적 '경사' 국산차, 노사갈등·생산차질 '비틀'

상반기 완성차 국내시장 판매

국산 완성차 내수시장 점유율 부진
"임단협 악순환 지속시 미래 악영향"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내 완성차는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함께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수입차 업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보복소비'가 겹치면서 올 상반기 사상 최대 판매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수입차 업계는 독일 3개사의 독주가 아닌 지프와 볼보 등 다양한 브랜드의 성장세도 눈길을 끈다.

◆악재 겹친 국내 완성차

7월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는 올해 상반기 해외 수출 물량 상승으로 전체 시장은 성장했지만 내수 시장에선 사상 최악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현대차(0.4%)와 기아(0.0%)는 전년 동기 대비 지수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쌍용차(-18.4%), 르노삼성(-17.3%), 한국지엠(-6.8%) 등의 내수 판매는 크게 감소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가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의 골



볼보 S90, XC90.

이 깊어지면서 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전체 조합원 중 6613명이 참여해 5841명(76.5%)이 찬성했다. 결국 노조는 사측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현대차도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르노삼성 노사의 경우 지난해 임단협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폐쇄와 부분파업 등 '강대강' 대결을 벌였다. 현재는 소수 노조와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해 르노삼성기업노조의 교섭·쟁의권이 정지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만약 국내 완성차 업계가 노사 갈등으로 파업을 단행할 경우 하반기 내수는 물론 모처럼 되살아난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입차 거침없는 질주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수입차 시장은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던 독일 3사(벤츠·BMW·아우디) 뿐만 아니라 볼보와 지프 등도 고르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은 15.2% 성장한 14만 7757대를 기록했다. 수입차 시장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는 4만 2170대를 판매하며 16.0% 성장했고, BMW는 3만 6261대로 42.6% 성장했다. 아우디는 1만 798대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7.2% 상승했다. 독일 3사 이외에 도스웨덴의 볼보자동차와 미국의 지프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볼보자동차는 올 상반기 7629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국내 진출 이후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이자 4년 전인 2017년 연간 판매 대수(6604대)를 넘어선 수치다. 지프도 같은 기간 5927대를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을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도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임단협을 둘러싼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형지에스콰이아, 최병오 대표이사 선임

〈형지그룹 회장〉

최 회장, 3개 주력계열사 직접 경영

형지에스콰이아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최병오 형지그룹 회장(사진)을 대표이사 CEO(최고경영자)로 선임했다고 7일 발표했다.

형지에스콰이아는 지난 2015년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에스콰이아를 형지가 인수해 새롭게 출범한 회사다.

이로써 형지 창업자인 최 회장은 모회사인 패션그룹형지('형지어패럴'로 사명 변경 예정)와 형지엘리트에 더해 3개 주력 계열사를 직접 경영하게 됐다.



형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대외 경영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창업자가 직접 비즈니스를 진두 지휘하겠다는 책임경

영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에스콰이아 브랜드 론칭 60주년을 맞는 올해를 제2 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 하순에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원미 기자 silverbeauty@

3단계 체제 유예기간 14일까지 연장

▶▶ 1면 '4차 유행 초입...'서 계속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다시 보류하고 기존 3단계 체제 유예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기로 했다. 그래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도 검토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기존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며 추가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서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3일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선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한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 집합은 금지되며,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도 10시로 제한된다.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점검과 처벌도 강화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약 100개팀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이 신설되며 수시 점검이 이루어진다. 방역 수칙을 한 차례 위반했을 경우 '경고'였던 행정 처분 기준이 앞으로는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한다.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이세경 기자 seelie@